

# MLB '로봇심판 시대' 앞당겨질까

뜨거웠던 가을야구가 끝났다. 승자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반면 패자는 아픔을 달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패자의 쓸쓸함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도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팬들은 물론 야구계에서도 이제는 공공연히 스트라이크존 판정에 기계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가 심판을 대체할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모양새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스포츠매체 '디 애슬레틱'은 전날 "2020년 마이너리그 일부 구장에 '로봇 심판'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로봇 심판'은 올해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주도로 독립리그인 애틀랜틱리그와 애리조나 가을리그에서 실험됐다. 레이더 추적 기술을 이용한 '트랙맨 시스템'이 투구를 판단해 스트라이크 여부를 이어폰을 통해 주심에게 전달하면 주심은 바로 콜을 하는 방식이다.

로봇 심판의 판독 결과가 심판에 전달되는 '시차'로 콜이 나올 때까지 4초 정도 걸린다는 점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이다. 간혹 낙차가 큰 원바운드 공에 스트라이크가 선언되는 등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던지는 투수들에게 유리하다는 말들도 있다. ESPN은 "여러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

하지만 이를 통해 야구가 발전한다."면서 "스트라이크를 스트라이크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판정의 일관성을 로봇 심판의 최고 강점으로 꼽은 것이다.

하지만 로봇 심판 도입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측정 기술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야구 전통주의자들은 로봇 심판이 주도하는 경기에 대해 '인간미와 야구의 신비로움이 사라져 더는 야구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포수의 플레이밍은 사라질 기술이 되고 심판들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애틀랜틱리그의 한 심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예술'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일을 해 왔다. 이제 기계가 그 열정을 사라지게 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많은 야구 관계자들은 이제 '로봇 심판'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시기 문제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보고 있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자동 스트라이크존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의 동의 등 '로봇 심판' 도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손흥민,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신기록

손흥민(27, 토트넘 홋스퍼)이 마침내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붐'을 넘어섰다.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32강) 조별리그 B조 4차전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12분과 후반 16분 연속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4-0 완승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앞서 지난달 23일 즈베즈다와의 챔피언스리그 안방경기(5-0 승리)에서 역시 2골을 몰아넣으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및 유럽 클럽축구 대항전에서 활약했던 '차붐' 차범근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프로축구 무대 최다골 기록(121골)과 타이틀 이룬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개인통산 122, 123호골을 연거푸 폭발시킴으로써 차붐의 대기록을 넘어서며 한국 축구사에 새로운 족적을 남겼다.

차범근은 지난 1978년 다름슈타트를 시작으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바이어 레버쿠젠 등에서 뛰며 1988~1989 시즌까지 총 372경기에서 121골을 기록한 바 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에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에서 상대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에게 발목 골절로 이어진 백태클을 해 정신적 충격에 빠졌었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당한 그는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3경기 출전정지 징계까지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토트넘의 항소로 퇴장과 그에 따른 징계가 모두 철회되면서 손흥민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났고, 이날 선발출장 기회까지 얻으며 대업을 완성했다.

한편 손흥민은 한국 축구사를 새로 쓰던 역사적 순간, 손흥민은 기쁨의 포효 대신 조용히 손을 포개고 고개를 숙였다. 안드레 고메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세리머니였다. 이를 본 축구팬들은 "가슴이 뭉클했다.", "고메스의 빠른 패유를 비는 손흥민의 진심이 느껴진다.", "신기록 경신보다 더 감동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의 인성에 대해 칭찬을 쏟아냈다.

# 장하나 "LPGA 투어 복귀 사양, 한국에 남을 것"

장하나(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LPGA에서 4승을 올린 뒤 2017년 5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복귀를 선언한 장 하나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끝난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다시 LPGA에 복귀할 기회를 잡았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 하나는 이날 후원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가족이 큰 이유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는 아니다. 저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부모님도 제가 곁에 있을 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저한테 큰 발판과 기쁨이 된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KLPGA에서 8승을 올린 뒤 2015년 LPGA 투어로 진출한 장 하나는 2016년 3승, 2017년 1승을 따내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3년도 안돼 KLPGA에 돌아갔다. 장 하나는 2018

년 3월 한국 복귀 후 첫 우승을 일궈냈고 이후 2승을 추가, KLPGA 투어 통산 11승을 기록 중이다.

장 하나는 LPGA 대회인 BMW 챔피언십 우승으로 다시 LPGA 투어 복귀 자격을 갖췄다. 그렇지만 장 하나는 "가족들 생각뿐이다. 고민은 단 이틀로 끝났고, 이제는 할까분하다."며 "우승 당시 기분은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보다 '다시 LPGA 대회에서 우승했구나' 정도 생각이었다.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어를 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장 하나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진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지만 나에게 올림픽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일단 내가 행복하기 위해 골프를 하고 그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라며 "미국에서 혹시 초청해준다면 그런 대회는 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무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